

현 불 뉴스

불교산악회 합동산행

대한불교산악회(가칭)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월악산 세계사에서 창립을 앞두고 합동산행법회를 갖는다.

대한불교산악회는 불교산악인들의 전국적인 연합기구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월 발기모임을 갖고 창립준비위(위원장 한계수)를 구성, 내년 창립 예정이다.

이날 산행은 전국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창립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운동단체 한마당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대표 지선)은 오는 27일 동국대 만해관장에서 불교운동단체 및 활동인력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 확보를 위한 한마당을 개최한다.

불교계 제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 및 상근인력 1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단체인 공동체의식을 도모하고, 불교개혁의 밑거름이 될 활동인력들의 불교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동국대 8백명 17일수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입)은 오는 17일 체육관에서 제4회 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직지사 회주)을 계사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8백여명이 수계를 받을 예정이다. (0561)770-2016

부경대 불자교수회 창립

부경대학교불자교수회(회장 하민경)가 오는 17일 부경대학(구 수산대) 대강당에서 서암스님을 초청,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부경대학교불자교수회는 수산대학교불자회와 부산공업대학교불자회로 각각의 조직을 갖고 활동해오다가 부경대학이 통합됨에 따라 부경대불자교수회로 창립되었다.

13회 방송작가 세미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6, 17일 백양사에서 제13회 방송작가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및 불교방송 불교TV 작가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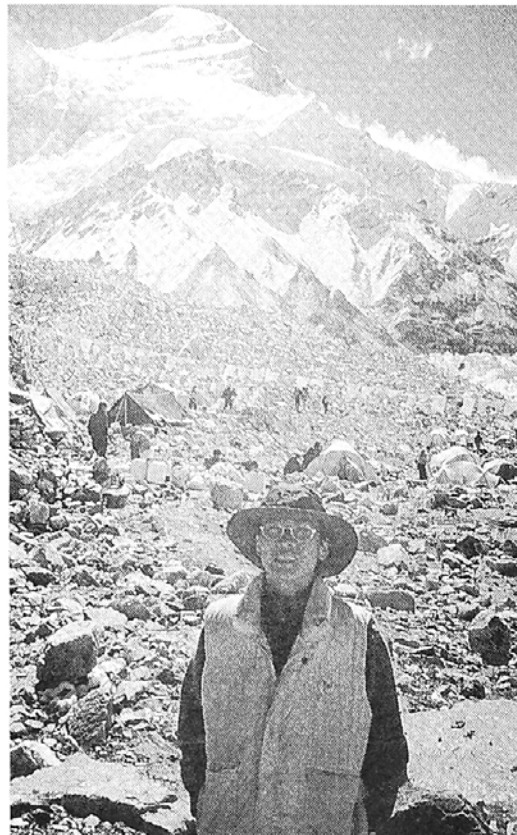
세미나는 신영훈 불일문화위원장과 진철송 불교문화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소사 참배로 진행된다.

불자산악인 히말라야 무산소 등정

변미정씨 여성 최초 초오유봉(8,201m) 정복

“관세음보살 염송하며 죽음공포 극복했어요”

“8천m 고지를 넘어섰을 때 갑자기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비를 넘겨 그 하얀 산의 정상에 설 수 있었습니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관세음보살 정진으로 이겨내며 여성최초로 히말라야 초오유봉을 무산소 등정한 변미정씨. “산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며 결승·생명염송을 강조한다.

(8,201m)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우바이(여성불자) 산악인 변미정(29)씨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무사히 등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변미정씨는 양산 마스터즈 산악회 회원으로 구성된 총 6명의 등정대원중 남자대원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산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8천m 고봉을 무산소등정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23일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른 변미정씨 일행 6명 모두가 불자여서 일까? 이들은 이번 등정에서 특

불교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산행에 임하려고 당부했다.

“산악인들이 산을 대하는 마음자세가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산악에서도 항상 겸손하며 산행중에 별래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꿈꾸었던 법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산악인으로 최선을 다해 불법(佛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다른 정상 에베레스트를 향한 꿈을 꾸는 변씨는 적극적인 지원자이자 자신의 산행을 냉정하게 평가, 충고해주는 남편과 함께 네팔 트래킹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 여성산악인으로서, 불자로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기우어 갈 것입니다.” (해신=천미희 기자)



◇ 청와대 불교신학회 1백여명이 창립법회에 앞서 조계사 법당에서 108참회를 했다. (사진=고영매 기자)

청와대불자회 5일 창립

1백여회원 보현행 실천 다짐

청와대불교신학회(회장 박세일·사회복지수석비서관) 창립법회가 지난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과 혜초 태고종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종단대표, 신행단체장, 청불회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개최에 앞서 청불회원들은 108참회로 순수신행모임으로 보현행 실천을 다짐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회경인사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불회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불자 1백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회장에 박세일 비서관, 부회장에 배재욱 사경비서관을 선출했다. 법회에 앞서 박세일회장과

이각법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배재욱비서관은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하고 월주 총무원장에게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의 대형사진을 전달했다.

해인총림 방장에 법전스님 추대

산중대책위·종진회의

해인총림 산중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보광)와 해인총림 산중 종진회의(의장 고봉)는 지난 4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종진스님으로 구성된 방장추대위원회를 열고 부방장 법전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산중종진회의는 오전에 법전 일타 도견 지관스님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후에 회의를 열어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법전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했다.

분당한방병원 개원

동대, 7개 진료과 개설

동국대 한의대부속 분당한방병원(원장 이종형)이 지난 11일 개원했다. 분당한방병원은 대지 5백40평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32실 1백여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침구과 한방내과 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등 7개 진료과가 개설됐다.

또한 의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체질개선, 보양, 종종클리닉 등 10여개의 특설클리닉을 운영한다.

조계종 승가대학원 개원

7일 은해사에서 11명 입학... 전문 교수인력 양성교육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원장 무비) 개원 및 입학식이 지난 7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법타)에서 봉행됐다. (관련인터뷰 4면)

이날 개원·입학식은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월주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종하스님 법조스님 성관스님 이석수 경북도정무부지사 영천시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승가대학원에 우리 종단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인도 결사의 정신으로 학문연구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승가대학원 및 일연학연구원 헌관식이 함께 봉행됐다. 한편 승가대학원 교수진은 우봉 각성 종진 호진 상목 현해스님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1기 입학생은 응각 대해 법장스님 등 총 11명이며 2기는 3년후 모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인스님 1백여명 골프장 반대 거리행진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전국 학인법회가 지난 14일 오후1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해인강원과 전국 승가대학 학인연합(전승련) 대의원 1백여명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개발의 미명아래 사할환경 및 수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가야산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은 사할환경보호를 위한 시금식”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회를 마친 후 모조 대장경관과 해인골프장 반대문구를 적은 만장과 현수막을 들고 조계사를 출발, 교보문고 종합청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에대해 금산사는 민족의 미륵성지인 모악산의 훼손은 있을



◇강사 양성을 위한 승가대학원이 은해사에 개설됐다.

“김제모악산 놀이시설 개발 안된다”

금산사대책위 절 입구 호텔·눈썰매장 반대

금산사 모악랜드 조성사업 중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악산자락 현장에서 지난 6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장이 주관하는 김제개발공사의 모악랜드사업을 저지기로 결의했다.

모악랜드조성사업은 1백92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악산 금산사 입구 1만9천평의 터에 눈썰매장과 놀이시설 가족호텔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방지치시대를 맞아 재인화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산사는 민족의 미륵성지인 모악산의 훼손은 있을

“가야골프장 환경평가 잘못”

조성준의원 대구환경청 감사서 주장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준의원은 또 △골프장 건설 예정지가 국립공원인 점 △식수원인 노리저수지가 골프장과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영재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여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채 오는 14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기로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일 해인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등을 감시기 위해 국민회의가 신청한 해인총림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산스님의 증인채택은 신한국당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마음 빈뇌 애써 끊으려 하면...

번거 망상을 애써 끊으려 하지 말고 좇아버려라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 더 달라붙습니다. 그냥 주인공에 맡기면 됩니다. 험다 맡기면 그게 목자 놓는 것이지요. (한아음유전)

철학 한마음선원 범형제회

제 21차 동학동문회 정기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맑은 가을하늘아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동학동문회 제21차 정기총회가 다음과 같이 열릴 계획이오니 각 분야에서 정진중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문회에 발전이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문회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일 시 : 불기 2540년 10월 21일 (陰9月10日) 오후 5시(저녁공양전까지)
장 소 : 계룡산 동학사 강설전
연락처 : 동학사 중무소(전화)042-825-2570 (팩스)042-825-6068

※ 10월9일자 공고된 양력 10월20일을 10월 21일로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특히 각 期대표 스님들은 연락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원들의 연락처를 책임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동문회 회장 혜 등 합장

성 명 서

- 모악랜드 조성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모악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미륵 성지이며 이천만 불자들의 귀의처인 금산사는 국보 1점, 보물 10점등 소장 민족 문화 유산과 더불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김제 시장이 주관하고 김제 개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악랜드 조성공사는 민족의 영산인 모악산과 미륵 제일 성지인 금산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니 이천만 불자들이 어찌 수수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악산과 금산사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 영원한 민족문화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백년의 수도 교화의 도량이 하루 아침에 유원지화 되는 일이 어찌 불교인들의 아픔으로 그치겠습니까.

김제시와 김제 개발 공사는 대오 각성하여 모악랜드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더이상 모악산과 금산사를 훼손하는 일체의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정한 도량, 맑고 아름다운 불국 정토 건설을 위하여 전라북도는 모악산 주변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문화 유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10월 일

모악산 금산사 모악랜드 조성공사 저지 대책위원회